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요즘 마트나 식료품 가게에 들어서면 지역 이름이 들어간 상품들이 부쩍 눈에 띈다. 여수, 제주, 서울 등 제 품에 도시명이 들어간 건 물론이고 '진도 파 크림 크로켓', '해남 녹차 빼빼로' 등 지역이 강조된 '로코노미' 상품들이 인기가.

로코노미는 지역(local)을 의미하는 로컬과 경제(economy)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전에 없던 것이 아닌 지역의 특산물이 어떻게나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MZ세대의 취향 덕분이다.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가치에 의미를 두고 소비하는 MZ 세대의 '미닝아웃(Meaning Out)' 트렌드는 로코노미를 트렌드로 급부상시켰다.

로코노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이 동네 소매점과 국내 여행을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과 콘텐츠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한 카드사의 빅데이터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부산, 제주, 전주 등 지역명이 들어간 가맹점이 증가했다고 한다.

로코노미의 시대

이전부터 지역 특산물이 있어 왔음에도 로코노미를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는 로코노미에는 콘텐츠와 가치에 대한 선순환과 MZ세대와 연결하는 상호 공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이런 소비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친밀함과 유대감을 갖게 된다. 동시에 지역은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의 시·군·구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 시대에 로코노미 트렌드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다. 물론 이 트렌드로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부르고 국가 발전을 위해 누구도 쉽게 소비에는 동참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이 또한 한 시절의 유행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트렌드다. 유행은 한 사회의 한 시점에서 있는 특정한 현상이며 그 사회에 침투 또는 확산해 가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롭고 흥미롭고 멋진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경향이 있다.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 로코노미의 좋은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중 20세기에 들어선 후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사례들을 들여다 보는 것이 의미 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자신의 디자인 철학으로 지역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한 디자이너의

활동이다. 스스로 '새롭게 물건을 만들지 않는 디자이너'가 된 나가오카 겐메이는 오래 쓸 수 있는 '홀통한 디자인'을 꼽아 소개하고 판매 활동을 하며 일본의 지역을 소개하는 특별한 여행 잡지를 발행해 왔다.

잡지는 방문한 지역의 속속에서부터 물건이 이르기까지 직접 체험한 경험을 감동이라는 기준으로 소개하며 표지에도 지역 작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지역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다.

여행 잡지를 통해 이주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의 잡지는 일본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이주'라고 밝힌 바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이용이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르는 것도 전보다 자유로워졌다. 그가 신념을 갖고 하는 일은 꼭 도시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새로운 트렌드의 신조어를 접할 때마다 시대가 변한다는 말을 실감한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역의 삶이 각광받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다만 로코노미가 단순한 트렌드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가치 상승, 그리고 이주에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새로운 유행이 지속 가능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철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내일 비가 올까? 강수가 '확률'로 예보되는 이유



장동연
기상청장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강수확률'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강수확률은 70%, 90% 같은 퍼센티지로 표시되는데, 강수확률이 60%라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인지 안 온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기온이나 습도 같은 요소들은 값을 꼭 집어서 예보하는데, 왜 유독 강수만 확률로 표현하는 걸까? 이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강수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온다', '안 온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비가 올 확률이 몇 % 인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수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예보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값을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강수 확률값이 결정되는 것일까? 강수확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 그리고 그중 확률예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앙상블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수치예보모델이란 미래의 날씨 예보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기의 운동을 설명하

는 복잡한 물리방정식을 슈퍼컴퓨터로 풀어서 미래의 날씨 상태를 예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치예보모델은 현대 일기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며, 실제 기상청에서 매일 생산해내는 일기예보는 수치예보모델에서 산출된 결과들을 예보관들이 분석·수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하나의 수치예보모델을 수행하면 하나의 예측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모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모델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시나리오 또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예측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예보관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최적의 예측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앙상블모델이다.

여러 개의 모델을 개발하여 앙상블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에 다양한 초기입력값을 주어 여러 예측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식으로 앙상블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10개의 초기입력값을 주어 모델을 10번 수행하면 10개의 예측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앙상블 모델을 멤버가 10개인 앙상블모델이라고 부른다.

앙상블모델을 구성하는 멤버들을 분석하면 강수확률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전체 앙상블 멤버 대비 실제 강수를 예측한 멤버의 비율이 강수확률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상블 멤버가 10개라고 할 때 10개의 멤버 중 8개가 강수를 예측했다면 강수확률은 80%가 된다. 이렇게 앙상블모델로부터 직접 계산된 강수

확률을 예보관들이 보정하여 최종 강수확률이 결정된다.

기상청에서는 현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모델을 기반으로, 전구앙상블모델과 국지앙상블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전구앙상블모델은 지구 전체를 모델영역으로 하고, 국지앙상블은 한반도 주변 지역을 모델영역으로 한다. 32km 해상도를 가진 전구앙상블 모델은 26개의 멤버로부터 26개의 예측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울 5월부터 현업 운영을 시작한 국지앙상블은 3km 격자 간격을 가진 고해상도 모델로서 총 13개 멤버로 구성되어 13개의 예측시나리오를 산출한다. 국지앙상블의 예측특성을 평가한 결과 집중호우 발생 시 강수예측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 앞으로 집중호우 예측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강수 등 일부 예측이 어려운 요소에 대한 예측 수준은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여러 개의 예측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앙상블모델이 단일 수치예보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확도 높은 예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대하고 있는 위험 기상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앙상블모델의 해상도를 개선하고 멤버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기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전라도 호박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붉다 못해 뜨거운 만추, 각혈하듯 나무마다 단풍꽃을 피우고 있다. 마루에도 그 아래도 반짝인다. 늦가을 햇살이다.

각화동 농산물시장에 들렀다. 농촌의 들뜬, 농민들의 노고가 모여서 생기가 돈다. 무릇 반도체, 자동차, 선박만을 앞세워 달려온 나라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기 농산물을 삼키면서 오직 살려면 공산품을 살려야 한다는 말만 뱉는다. 그러나 그 공산품 자동차나 선박 그리고 반도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변화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시장을 나오는 뒤통수, 구석에 낫익은 친구들이 계단에 웅기쭈렁이 흥취가 쌓여 있다. 호박, 늙은 호박들이다. 호박은 여기서조차 구석에 박혀 있다. 어디서나 푸대접받는 게 호박이다.

이른 봄, 호박꽃은 넝쿨이 막 뻗는 게 싫으면 핀다. 넓고 커다랗게 핀 호박꽃은 별처럼 흥흥했다. 등하곤길 돌담에 무슨 소리가 들려다가가면 호박꽃 속에 벌들이 가득했다. 양다리 무겁게 꿀을 단 벌들이 날아가기 무섭게, 새로 꿀을 따러 온 벌들이 날아들었다.

우린 슬며시 다가가 재바르게 호박꽃의 꿀을 오므려 벌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꽃 속에 벌들이 왕령거릴 때, 그 호박꽃을 꺾어 마치 불 강동을 둘러듯 빙빙 호박꽃을 돌렸다. 그렇게 고살 여기저기 호박꽃은 떨어졌다.

조금 더 자라서는 논과 밭으로 꿀을 배려 다녔다. 텃밭을 경향한 밭에는 오이며 가지며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었다. 칼 베다 베 고르면 슬쩍슬쩍 밭 주인 몰래 한두 개 따먹곤 했다. 그러다 잡히면 주인에게 혼쫓아 나갔고, 부모님께 혹독한 벌을 받게 받아야 했다.

개구쟁이 사심살이었던 우리는 다음날 그 분풀이를 애먼 호박에다 했다. 먼저 밭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주인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 호박을 골랐다. 그리고 꼭지 부분을 동글게 따서 속의 호박씨를 꺼내고 그 빈 속을 우리 소변으로 채웠다. 그리고 다시 꼭지로 막고 길쭉했다. 호박에 말뚝 박기는 양반이었다. 애먼 호박에 무슨 고약한 심보였던 말인가.

다 익어야만 먹는 수박과 달리 호박은 애호박은 물론 이려니와 호박잎 그리고 늙은 호박, 심지어 호박씨까지 먹는다. 호박죽, 호박떡, 애호박 찌개, 호박 지짐, 우리는 호박을 이렇게 즐기면서도 정작 귀한 잔치상에서는 썩 배려. 꼭 짝의 자식 같은 호박.

이쁜이가. 랜스라 못생긴 사람을 호박 그것도 호박꽃에 비유하여 호박과 호박꽃을 갈아몽개고, 자기 못생긴 줄은 모르고 호박꽃에 비유했다고 노밭대밭 난리를 떠난다. 또 썩덕거리면 이를 시기하여 호박씨 간다고 애먼 호박에 누명을 씌운다. 엉덩이나 가슴이 평평

하면 호박 같다고 하고, 혹여 조금 잘난 적이라도 하면 호박에 줄 곳다고 수박 되지 않느냐며 그 유전자까지 비하한다. 그렇게 혹평을 받을 만큼 호박 잘못이 있는 걸까.

오이나 가지 등 각종 채소는 밭 가운데 심고 정성껏 가꾼다. 수박은 원두막까지 짓고 지킨다. 호박은 그런 법이 없다. 하지만 밭둑에 밀려나서도 잘도 자란다. 두 엄이나 거름 따위는 호사다. 부짓집 외동아들 같은 수박과 달리 머슴 집 자식 같은 호박은 심어만 놓으면 밭둑을 온통 다 덮고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비록 과일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호박은 돌담을 덮고 지붕을 덮고 사방팔방 곧잘 뻗어나갔다.

각화 농산물시장 뒤통수 철제 계단, 그 위에 계단 층층이 놓인 호박, 예쁘게 포장한 다른 채소와 달리 누가 저가도 상관없다는 듯 버려진 듯 놓인 늙은 호박 위로 가을이 떨어지고 있다.

다른 채소나 과일처럼 냉장고에 들어가 호강하는 적도 없고, 귀한 손님이라도 오면 얼른 손님맞이 대접을 해본 적도 없는 호박, 어느 때는 넝쿨 채 들어가 행운을 안기기도 하는 호박에 대해 우린 너무 인색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일까. 호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녀석은 꼭 우리 같다. 호박은 꼭 호남 같다. 다른 지역은 공업을 앞세워 수박처럼 우대하면서, 매년 쌀값마저 하락하고 인구 유출도 심한데, 여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우리 전라도, 구석에 쌓여 있는 호박을 보고 있으면 나는 꼭 나를, 우리를 보는 것 같다. 꼭 전라도를 꼭 전라도 사람 보는 것 같다.

社說

전두환 사망 3년... 잊혀져가는 5·18 과제들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났지만 5·18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과 5·18 헌법 수록, 5·18 왜곡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있다.

대교 5·18 핵심 과제들이 정치권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로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추징 대상을 상속 재산과 물건 외 재산까지 확대해 전두환이 미납한 추징금 867억 원 환수를 기대했지만 후속 조치 미흡으로 없던 일이 됐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6월 공소시효를 제한하지 않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5·18 정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5·18 왜곡처벌법은 제정 이후에도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정부 주관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려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발표 명령자와 암매장·행불자 등 핵심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대교 5·18 핵심 책임자인 전씨 사망 3년이 지나면서 이같은 5·18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채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잊혀져 가는 5·18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전두환 추징 3법을 되살리고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정 질서 파괴범이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추징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5·18 정선 헌법 전문 수록도 입서비스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불안한 어등대교 벌써 네 차례 파손 사고라니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최대 교량인 어등대교에서 파손된 교량 장치를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장치 파손 사고는 3년 새 네 차례나 발생했다. 사고 발생 때마다 보수를 했을 터인데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반복됐다면 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등대교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가장 큰 다리로 나주산단, 전남 남서부 등으로 이동하는 물류 및 차량들이 많아 하루 통행량이 무려 15만여 대에 달하는 관문다리이다. 이런 다리에서 동일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면 이곳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나출전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암동 어등대교 시정방면 2차로의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부서져 이곳을 지나는 차량 1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종합건설본부가 14시간에 걸쳐 수리작업을 하느라 이 일대는 출근시간대와 오후 내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어등대교는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다리 상판을 공중에 매단 형태인 특수교량이며, 이런 교량에는 다리 상판이 기온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상판과 상판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다. 이날 사고는 파손된 신축이음장치에 통행하던 차량의 하부가 부딪혀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어등대교에 화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아 신축이음장치가 반복적으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광주보다 산단 규모와 물동량이 월등히 많은 부산이나 울산 등의 교량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그동안의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총정리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교량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장소의 잦은 사고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無等鼓

'늦봄' 문익환 목사(1918~1994)는 신학자이자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였다. 평생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한 시대의 선각자이기도 했다. 1918년 북간도로 일컫는 길림성 명동촌에서 태어난 문목사의 일생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민족분단, 유신정권, 군사독재 등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한다.

어린 시절 명동촌의 개혁과 자립정신은 문 목사에게 자연스레 항일 민족의식을 갖게 했다. 학창시절 그는 운동주, 송몽규, 장준하 등과 교우관계를 맺으며 민족사랑의 결의를 다졌다. 문 목사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

었던 것은 1975년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인 장준하의 죽음을 겪고서였다. 또한 명동소학교 시절 친구였던 윤동주의 죽음에 대해 늘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문 목사는 76년 명동 '3·1민주국선언'으로 옥고를 치렀고 80년 내란예비음모죄로 재수감됐다. 함석헌 등과 함께 진보주의 개신교 대표로 활동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매진했다. 89년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할 만큼 통일운동에도 열

성이었다. 올해는 문 목사 서거 30주년이 되는 해다.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의 삶과 정신을 다룬 뮤지컬이 광주에서 상연됐다. 광주문화재단이 23일 '늦봄의 길'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에서 펼쳤다. 작품은 문 목사 생애 중 고난과 격동의 시기였던 1970-80년대에 초점을 맞춰 역동성과 몰입감을 선사했다.

서거 30주년이 지났지만 민주화와 통일에 매진했던 그의 삶은 여전히 울림을 준다. '늦봄'이라는 호는 계절의 의미보다 '늦게 눈을 뜨고 세상을 늦게 보았다'는 겸허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민주와 공정, 상식의 가치들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는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이와 맞물려 남북의 긴장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들어 문익환 목사와 같은 어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다. 이래저래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고, 봄은 더디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채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